

고려의 여진정벌과 기마전

李 弘 斗*

1. 머리말
2. 정주성 전투의 패배와 신기군 창설
3. 윤관의 9성 설치와 공격적인 기마전
4. 동북 9성의 설치 이후 수성전과 기마전
5. 맺음말

1. 머리말

그동안 고려시대 여진정벌에 대한 연구는 북진정책과 군사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는 예종대 윤관이 설치한 9성의 고증 문제와 여진의 귀화, 투화인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고, 후자는 별무반의 창설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려시대 북진정책의 추진은 대외관계에서 일체의 타율성론을 극복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난 극복사로서의 북방사, 중앙군·지방군의 군사체제, 군역의 연구가 어느정도 축적된 지금부터는 전략과 전술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 고려 별

무반 소속의 신기군이 어떻게 여진 기병을 격파했는가를 구명한다면, 우리는 당시의 기마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마전의 관점에서 보면 여진족의 청장년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했는데, 평시에는 목축과 수렵에 종사하다가 전시에는 발근 부대에 소속하여 도발극열의 지휘를 받았다.¹⁾ 여진군의 전투방식은 공성전투와 평지전투로 구분한다. 공성전투는 군대가 성을 포위하면, 기병이 성 주변의 교통망을 장악하여 구원병이 오는 길목을 차단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이 위급할 경우, 퇴로를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 반면에 평지전투는 50기를 최소단위의 1대로 하되, 중장기병과 경기병의 협력전술에 중점을 두었다. 전투 대열의 앞에는 돌과용 타격무기를 장착한 20기의 중장기병을 배치하고, 뒤에는 활로 무장한 30기의 경기병을 배치하였다. 만약 적의 약점을 찾으면, 중기병이 돌진하고, 경기병이 뒤에서 엄호 사격을 하였다.²⁾

한편 고려군의 기마전은 9성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공격적인 속전속결전법을 사용하였고, 9성을 설치한 이후에는 방어에 중점을 둔 수성전법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평지전투에서는 별무반 소속의 돌격대가 선봉에서 火箭을 쏘아 적진을 돌파하면, 대규모 기병단인 신기군이 측면에서 적의 대열을 격파하였다. 성에 의지하여 수성전술을 구사할 때도 신기군이 개문출격하여 빠른 기동력으로 적을 기습하고 성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고려 여진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³⁾ 그러나 기

1) 각 部의 추장을 발근, 몇 개 部의 지도자를 도발근, 최고 추장을 도발극열이라고 하였다. 발근·도발근·도발극열은 여진 부족의 행정 책임자이면서 전시에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부족 군대를 통솔하였다.

2) 임용한, 『전쟁과 역사 2-거란·여진과의 전쟁』, 혜안, 2004, 263~264쪽.

3) 정해은, 『고려시대 군사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장학근, 『고려의 북진정책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임용한, 앞의 책.

유재성, 『한민족전쟁통사II(고려시대편)』, 국방군사연구소, 1993.

이동복, 『동북아세아시아연구-금대 여진사회의 구성-』, 일조각, 1986.

추명엽, 「11세기후반~12세기초 여진정벌문제와 정국동향」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사

* 홍익대 조치원컴퍼스 겸임교수

마전에 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⁴⁾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1104년 2월 정주성 전투에서 임간과 윤관이 여진군에게 패배와 별무반 소속의 신기군 창설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여진 기병을 격파하기 위해 설치한 고려 별무반 소속의 특수군이 기병과 어떻게 협력 전술을 펼쳤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종대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쌓기까지 일련의 공격적 기마전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여진에게 9성을 반환할 때까지 사용한 수성전술과 관련하여 기마전을 살펴볼 것이다.

학과, 2001.

김남규, 「고려 예종대의 對女眞政策-예종 2년 對女眞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경대사론』 10, 경남대, 1997.

김남규, 「고려중엽의 대여진정책-선종, 숙종을 중심으로-」 『가라문화』 13, 경남대, 1996.
정수아, 「尹瓘세력의 형성-윤관의 여진정벌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의 검토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6, 1988.

나만수, 「고려전기 對女眞政策과 윤관의 北征」 『군사』 7, 1983.

최규성, 「고려초기 여진문제의 발생과 북방경역」 『백산학보』 26, 1981.

최규성, 「고려초기의 여진관계와 북방정책」 『동국사학』 15·16합집, 1981.

방동인, 「고려의 동북지방경역에 관한 연구-특히 윤관의 9성설치 범위를 중심으로-」 『영동문화』 창간호, 1980.

서병국, 「고려시대 여진교섭사연구」 『관동대논문집』 6, 1978.

김광수, 「고려전기 대여진교섭과 북방개척문제」 『동양학』 7, 단국대, 1977.

김구진, 「윤관 9성의 범위와 조선 6진의 개척-여진세력 관계를 중심으로-」 『사총』 21·22, 1977.

방동인, 「尹瓘 九城再考-九城설치 범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21, 1976.

김상기, 「여진관계의 始末과 윤관의 北征」 『국사상의 제문제』 4, 1974.

이기백, 「고려별무반고」 『김재원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윤무병, 「길주성과 공험진-임비문제의 재검토」 『역사학보』 10, 1958.

4) 한국의 기마전에 관한 논고는 다음과 같다.

李弘斗, 「高句麗의 對外戰爭과 騎兵戰術-특히 漢族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제68호, 2004.

李弘斗, 「高句麗의 鮮卑族戰爭과 騎兵戰術-특히 前燕·後燕·隋戰爭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제75호, 2004.

李弘斗, 「高麗 契丹戰爭과 騎兵戰術」 『史學研究』 제80호, 2005.

이흥두, 「조선초기 야인정벌과 기마전」 『군사』 제41호, 2000.

이흥두, 「임진왜란초기 조선군의 기병전술」 『백산학보』 제74호, 2006.

2. 정주성 전투의 패배와 신기군 창설

송화강 유역의 동여진은 친고려 세력과 반고려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종 8년(1103) 완안부의 우야소(烏雅束)에게 쫓기던 친고려 세력은 2천명을 이끌고 고려에 귀순하였다. 이들을 추격하던 여진군은 1104년 1월 6일 정주성 관문 앞에 진을 치고 여진인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고려 정부는 완안부 여진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해 1월 9일 여진 정벌군을 편성하였다. 2월 충사령관에 임명된 임간은 적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군사를 이끌고 정주성 밖으로 출격하였지만, 패배하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정벌군 사령관을 임간에서 윤관으로 교체하고 정주성 북쪽 여진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당시 아군의 사상자도 군대의 절반을 넘었다.⁵⁾

숙종대 단행한 두 번의 여진정벌에서 고려군은 공격적인 속전속결전을 사용하였다. 그러면 당시 고려 정벌군의 숫자가 여진군보다 많았는데, 왜 두 번 모두 패배하였을까? 그것은 여진의 주력군이 기병이었던 반면에 고려 주력군은 보병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간과 윤관이 패배한 정주성 전투를 통해 고려와 여진의 기마전을 고찰하려고 한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양국의 기마전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2월에 임간이 여진과 정주성 밖에서 싸워 대패하였다. 처음에 내시 임언이 출병의 논의를 주장하였다. 직사관 이영이 말하기를, “무기는 흉기요, 싸움은 위험한 일이니, 망동함이 옳지 않다. 그런데 임언이 무사할 때 군사를 일으켜 틈을 내려함은 심히 불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듣지 않았다. 임간이 공을 세우려고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워 패전하여 대부분이 죽었다. 오직 추밀원 별가 척준경이 병기와 介馬를 임간에게 요청하여 적진으로 들어갔다. 장수 한 명을 베고 포로 두 명을 구출하였으며,

5)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 9년 3월.

교위 준민과 덕린이 각각 적 한 명을 쏘아 죽였다. 적이 조금 후퇴할 때 군사를 돌이켰다. 적이 1백 명의 기병으로 추격하자, 척준경이 大相 인점과 함께 적장 두명을 쏘아 죽였다. 적이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여 아군은 성 안으로 들어왔다.⁶⁾

이 기사는 동북면병마사 임간이 여진군의 형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정벌군을 이끌고 정주성 밖에서 기마전을 전개했다가 정벌군 대부분이 전사하였으며, 그나마 별가 척준경이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적진에 돌격함으로써 궁지에서 신속히 행동하여 위기를 벗어나 아군이 성 안으로 들어왔음을 말해준다.

사령관 임간은 여진 정벌군을 이끌고, 2월 정주성 밖으로 출격하였다. 고려 정벌군은 보병을 위주로 한 부대로서 기병이 주력군인 여진군과 평지에서 전투하였기 때문에 전세는 항상 여진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⁷⁾

당시 임간이 거느린 정벌군의 규모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군사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워서 패배했다”⁸⁾는 위 사료의 내용은 고려 정벌군의 숫자가 여진군보다 적었음을 시사한다. 만약 병력이 적은 고려 정벌군이 여진군과 기마전을 전개하려고 했다면 장소는 평지가 아닌 험지에서 싸워야 했고, 시간은 낮보다는 야간전투가 유리하였다. 한편 성에 의지하여 지구방어하는데 능한 임간의 정벌군은 처음부터 堅壁淸野 전술로 방어에 치중하면서 틈을 기다려 기마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고려 정벌군을 성에서 평지로 유인하기 위해 여진 선봉대가 전술

6) 『고려사절요』 권7, 숙종 9년 2월, “二月林幹 與女眞戰于定州城外 敗績 初內侍林彥 主出兵之議 直史館李永曰 兵凶器 戰危事 不可妄動 彥當無事時 欲用兵生釁 甚不可也 王不聽 幹又邀功 引不教之兵 遽出與戰 敗死者大半 惟樞密院別駕拓俊京 請兵器介馬於幹 入賊陣 斬其將一人 奪所俘二人 遂與校尉俊旻 德麟 各射賊一人 殪之 賊少却 及回兵 賊以百騎追之 俊京與大相仁占 射殺賊將二人 賊不敢前 我軍得入城”

7) 유재성, 앞의 책, 169쪽.

8) 병력이 많을 경우에는 여유를 두어 지구전을 수행하고, 병력이 적을 경우에는 급히 싸운다(성백효 역, 1995, 『병학지남연의(Ⅰ)』, 국방군사연구소, 165쪽).

상 후퇴한 것을 놓고 여진군의 전투력이 약하다고 오판한 정벌군은 너무 깊이 추격하였다. 당시 정주성 전투는 여진군이 보병이 주력군인 고려 정벌군을 평지로 유인하여 기병에 의해 단번에 고려 정벌군을 궤멸시켰다.⁹⁾ 따라서 고려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천리장성 이남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¹⁰⁾

고려군은 후퇴할 때 장창을 가진 보병이 방진을 쳐서 추격하는 여진 기병을 저지하여 시간을 지체토록 하였다면, 정벌군은 그 사이에 부대를 재편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임간의 정벌군은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전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할 때 중추원 별가 척준경이 介馬(鐵騎)를 타고 적진으로 돌격하여¹¹⁾ 적장을 쏘아 죽이고 포로를 구출하였다. 따라서 여진군이 잠시 추격을 멈추고 주춤하는 사이에 정벌군은 성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여진군은 정주성 남쪽 선덕관으로 난입하여 고려군을 수없이 죽이고 노략질하였다.¹²⁾

그러면 임간의 정벌군이 패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위 사료에서 ‘훈련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나가 싸웠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고려사』에서 ‘적을 앞보고 깊이 들어간 것이 패인이다’¹³⁾고 지적한 사실

9) 기병은 돌격력에서는 우수하지만, 그 기동력은 지형조건에 따라 현저히 좌우된다. 기병이 보병과 싸울 때 산림과 경사지, 방죽, 험준한 지형과 마주친다면 신속히 그러한 지형에서 이탈해야 한다. 이러한 곳은 기병으로서의 필패지역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된다. 만약 기병이 보병과 전투를 하려면 평탄한 지형을 선택해야 한다(劉基 著·姜昶求 編, 『百戰奇略』, 1994, 문화문고, 35쪽.

10) 앞의 주와 같음.

11) 돌격대는 삼국시대의 경우 도끼부대였고, 별무반을 창설한 이후에는 특수군들이 그들이며, 조선초기에는 彭排가 돌격대였는데, 防牌軍이라고 칭했다. 방패군은 경인년에 처음 창설하였으며, 창설 당시의 인원은 3백명이었다. 방패군은 좌작진퇴의 절차와 陣法을 익혔다. 그 뒤에 1천 2백명을 더 선발하여 戰陣의 일을 익히게 했는데, 1418년(세종 즉위년)부터 營繕하는 일을 시켰다(『세종실록』 권88, 22년 3월 1일).

12) 『고려사』 권96, 열전 윤관.

13) 앞의 주와 같음.

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위의 두 사료는 고려 정벌군이 경솔하게 공격함으로써 적의 유인작전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다.

11세기까지 여진족은 부족을 기본단위로 하였기 때문에 병종은 물론 전략 전술도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따라서 고려군이 여진족을 격퇴할 때는 선봉 정찰대의 정보를 토대로 군사를 매복하거나, 적의 퇴로에 대기하였다가 기습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완안부 추장 우야소가 주변 부족을 통일하고 두만강을 세력권으로 하여 부족의 군대를 통합하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고려 정부는 2월 21일 전쟁에 패한 임간을 파직하고, 동북면 행영병마도 통 윤관을 정벌군 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윤관은 3월 4일 병력을 이끌고 정주성 북방의 천리장성 밖으로 진격하여 여진군을 공격하였다.¹⁴⁾ 이 전투에서 고려 정벌군은 도망치는 여진군을 추격하여 벽등수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¹⁵⁾

정주성 전투에서 패전한 여진은 천리장성 북방에 설치한 성책을 모두 철거하고, 그해 6월 사신 60여 명을 고려에 보내어 화의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고려와 완안부 여진은 강화를 맺고 각각 철군하였다.¹⁶⁾

고려는 1104년 1월부터 3월초까지 여진정벌을 감행함으로써 그들의 침략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고려 병사도 사상자가 절반을 넘었던¹⁷⁾ 사실은 고려군이 실패한 전쟁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윤관이 개경에 귀환한 직후 전쟁의 패인을 '여진군은 기병인 반면, 고려군은 보병이었기 때문이다'고 보고한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같은 사실은 윤관이 향후 승패의 관건을 기병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려 정부는 숙종 9년(1104) 12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別武班을 창설하게 되었다. 별무반¹⁸⁾의 병종은 기병의 神騎軍과 보병 특수군인 신

14) 유재성, 앞의 책, 170쪽.

15) 『金史』 권135, 열전 외국 고려.

16) 『고려사』 권12, 숙종 세가 9년 6월 甲寅: 『금사』 권135, 열전 고려.

17) 『고려사』 권12, 세가 숙종 9년 3월.

보군·도당군·경궁군·정노군·항마군이 있었다.¹⁹⁾ 별무반을 설치한 목적이 여진 기병의 격파에 있었기 때문에 신기군의 역할은 매우 컸다. 그러나 신기군은 특수군의 지원을 받았을 때 파괴력이 향상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기마전에서 특수부대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별무반 소속의 특수군은 기병과 어떻게 합동전술을 펼쳤을까? 다음의 사료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숙종 9년 12월에 윤관이 아뢰어 처음으로 별무반을 두었다. 문무·산관·이서로부터 상고·복예·주·부·군·현민에 이르기까지 말이 있으면 신기군으로 삼고, 말이 없으면, 神步軍·跳盪軍·梗弓軍·精弩軍·發火軍으로 삼았다. 20세 이상인 자 가운데 과거 응시자가 아니면 모두 신보군에 소속시키고, 양반과 함께 여러 鎭과 府의 병사를 4계절 훈련하였다. 또 사원의 수원승도를 선발하여 항마군으로 삼았다.²⁰⁾

위 사료는 별무반을 설치할 때 말이 있으면 신기군에 편성하고, 말이 없으면 신보군으로 삼았으며, 사원의 수원승도를 항마군에 소속케 했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별무반에는 도당군, 경궁군, 정노군, 발화군 등 특수 병종이 있었다.

도당군은 도끼부대인데, 그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투 중에 목책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아군의 기병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갑옷으로 무장한 중장보병이나 기병을 공격하는 것이다.²¹⁾ 도당군이 기병에 앞서 적의 대열을 공격하는 선봉대였음은 '冠宣이

18) 별무반에 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할 것.

이기백, 「高麗別武班考」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19) 고려시대 승군에 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할 것.

이흥두, 「고려시대의 군제와 승군」 『백산학보』 72호, 백산학회, 2005.

20) 《고려사》 권81, 지35 병제 5군, “肅宗 九年十二月 尹瓘奏 始置別武班 自文武散官吏胥至于商賈僕隸 及州府郡縣 凡有馬者爲神騎 無馬者爲神步 跳盪·梗弓·精弩·發火軍等 年二十以上者 非舉子 皆屬神步兩班 與諸鎭府軍人 四時訓練 又選僧徒 爲降魔軍”

21) 도끼는 내려치는 힘이 매우 강하다. 특히 투구를 쪼개고 미늘갑옷을 찢는 데 매우 효과적인

중군했을 때 큰 도끼를 들고 앞장서서 적을 쳐 10여 명을 죽이니, 관군이 세를 타서 적을 대파했다²²⁾는 것과 '김부식이 승려 尙崇을 시켜 도끼를 들고 반격케 했는데, 10여 명을 죽이자 적진이 붕괴되었다²³⁾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경궁군은 활을 쏘는 궁수부대다. 궁수는 아군이 공격할 때 기병을 엄호하는 사격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방어할 때는 돌격해 오는 적의 선봉 기병대를 저지하는 데 궁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궁군은 보통 궁수가 사용하는 맥궁보다 훨씬 무거운 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파괴력도 매우 컸다. 특히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출중한 궁술의 소유자가 활을 쏘아 적장을 죽이면 일순간에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고종 19년(1232) '살레탑이 와서 처인성을 공격하니, 승려 김윤후가 활을 쏘아 죽였다'는 사례가 그것이다.

항마군은 수원승도로 편제된 승군인데, 병종은 보병이었다.²⁴⁾ 항마군은 여진 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제압하기 위해 긴 창을 가지고 방진을 쳤을 것이다. 한편 항마군이 기병이었음을 시사하는 사료가 있다. 송나라 서공은 『고려도경』에서 재가화상이 '말을 타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다(不閑於馳逐)'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항마군의 임무는 적진을 공격하는 선봉대 역할이 지배적이었을 것이다.²⁵⁾

아무튼 별무반을 창설한 이후 고려 기병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것은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별무반 소속의 특수부대가 적진을 유린함으로써 기병이 신속하게 적진을 파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무기였다. 미늘갑옷은 창과 화살같이 찌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베거나 도끼와 같은 강한 충격을 동반한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임용한, 『전쟁과 역사(삼국편)』, 혜안, 29쪽)
 22) 『고려사』 권98, 열전 김부식.
 23) 앞의 주와 같음.
 24) 이기백, 앞의 논문, 11쪽.
 25) 항마군의 기병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흥두,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3. 윤관의 9성 설치와 공격적인 기마전

완안부 여진군은 예종 원년(1106) 3월에 기병 2천기를 이끌고 정주성 일대에 진출하여 고려군의 전력을 탐색하였다. 당시 고려는 동북면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별무반의 훈련을 강화하며 여진정벌을 준비 중에 있었다. 마침내 예종은 1107년 10월 윤관을 원수로, 오연충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제2차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다.

여기서는 고려가 여진을 정벌하고 윤관 9성을 쌓기까지의 전투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 기마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윤관이 거느린 고려 정벌군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제2차 여진정벌에 동원된 군대의 숫자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고려 여진정벌군 편제

군별	지휘관	출발지점	군액
본군	원수 윤관	정주 대화문	53,000
중군	중군병마사 김한충	안록수(함남 정평)	36,700
좌군	좌군병마사 문관	정주 홍화문	33,900
우군	우군병마사 김덕진	선덕진(함남 함주) 안해	43,800
수군	선병별감 양유송 등	도린포	2,600
			합계 170,000

윤관은 17만의 정벌군을 이끌고 12월 4일 동계 장춘역(정평)에 진을 쳤다. 그리고 여진군을 분산시키고 아군은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먼저 여진군을 분산시키는 전략은 고려 정벌군의 숫자를 20만이라고 하여 군세가 크다는 것으로 견제하고, 천리장성 밖에 있는 여진군의 후방 병력은 주력군

과 접전하기 이전에 졌다.

다시 말해서 윤관은 장춘역에 진을 친 직후 병마판관 최홍정과 황군상을 친리장성 안에 위치한 정주와 장주에 나눠 들여 보내고 여진 추장에게 속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許貞과 羅弗을 석방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와서 명을 들으라고 하였다. 추장이 이를 믿고 古羅 등 4백여 명이 오자, 술로 취하게 한 다음, 군사를 매복시켜 섬멸하였다. 그리고 용맹한 여진군 5, 60명은 경기병을 출동시켜 생포하였다.”²⁶⁾

정주성 밖의 소규모 여진군을 소탕한 고려 정벌군은 12월 14일 정주성에 집결하여 [표1]과 같이 부대를 5군²⁷⁾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당시 여진군의 병력을 3만명으로 추정할 때 17만의 고려 정벌군의 병력은 적의 5배가 되었는데, 이 중 3은 정면공격에 충당하고, 2는 기습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른바 한편으로 정면공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측방과 후방을 치는 전술이었다. 특히 기병(신기군)을 크게 증강한 사실은 처음부터 고려 정벌군이 평탄한 지형을 선택하여 적극 공격하는 전술을 세웠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진군은 고려군의 왕성한 기세를 보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사료가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윤관이 대내파지촌을 지나 한나절을 행군하니, 여진이 우리 군사의 기세가 매우 성함을 보고 모두 도망하여 달아나고 오직 축산만 들에 깔려 있었다. 문내니촌에 이르니 적이 동음성에 들어가 방비하였다. 윤관이 병마영할 입언과 최홍정을 보내어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급히 쳐 격파하니 도주하였다. 좌군은 石城 아래에 이르러 여진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통역 대언을 보내어 항복하라고 했다. 여진이, ‘우리는 한번 싸워서 승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찌 항복하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석성에 들어가 항거하였다. 화살

과 돌이 빗발 같아서 아군이 공격할 수 없었다. 윤관이 척준경에게 말하기를, ‘해는 저물고 사태가 위급하니 그대가 이관진 장군과 함께 공격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척준경이) 석성 아래에 이르러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적진으로 달려가 추장 몇 명을 쳐 죽였다. 이에 윤관의 휘하도 좌군과 함께 쳐서 죽기로 싸워 크게 격파하니, 적이 스스로 암석에 투신하며 노유와 남녀가 모두 죽었다.²⁸⁾

이 기사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여진군이 성에 의지한 수성전으로 전환했음을 말해준다. 고려 정벌군은 대내파지촌을 지나 한나절을 행군했지만, 여진군을 만나지 못했다. 당시 여진군은 문내니촌의 동음성에서 활을 쏘고 돌을 굴리며 항거하였다. 윤관은 정예 병사를 선발하여 선봉대를 삼아 공격하는 한편으로,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 보병과 기병을 적당하게 벌려 세운 다음, 여진군이 성 위에 서지 못하도록 火箭을 쏘았다. 이어서 정예병사로 구성된 선봉대가 공격하기 쉬운 곳을 급히 쳐서 성을 함락시켰다.

한편 여진군을 추격하던 고려 정벌군의 좌군은 12월 15일 석성(북청군)에서 여진의 주력군과 격전을 벌였다. 석성은 매우 높고 가파르며, 화살이 빗발처럼 내려왔다. 정벌군은 처음 여진군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항복을 거절하고 화살을 쏘며 돌을 굴러 결사적으로 방어하였다.

이때 윤관은 척준경에게 적진으로 돌격할 것을 지시한 다음, 기병을 성의 후문에 매복시켰다. 이어서 척준경이 갑옷과 방패를 들고 적진으로 달려가 추장 몇 명을 쳐서 죽였다. 이때 윤관의 본군이 좌군과 합세하여 석성을 함락시켰다.

당시 척준경과 함께 鐵騎를 타고 적진으로 돌격한 부대는 별무반의 특수

26) 『고려사절요』 권7, 예종 2년 12월.

27) 여진 정벌군은 본군, 중군, 좌군, 우군, 수군의 5개부대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군은 윤관에게 직속된 전투부대이면서 예비대이고, 수군은 육군의 보조부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벌군은 3군인 셈이다.

28) 『고려사』 권96, 열전 윤관, “躡過大乃巴只村 行半日 女眞見軍勢甚盛 皆遁走 唯畜產布野至文乃泥村 賊入保冬音城 躡遣兵馬鈴轄林彥與弘正 率精銳急攻破走之 左軍到石城下 見女眞屯聚 遣譯者戴彥諭降 女眞答曰 吾欲一戰以決勝否 何謂降歟 遂入石城拒戰 矢石如雨 軍不能戰 躡謂俊京曰 日吳事急 爾可與將軍李冠珍攻之 遂至石城下 還甲持楯 突入賊中 擊殺酋長數人 於是 躡麾下 與左軍合擊 殊死戰 大破之 賊或自投巖石 老幼男女殲焉”

군이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별무반의 특수군은 도끼부대 跳盪軍, 활부대 梗弓軍, 큰활부대 精弩軍, 화포부대 發火軍, 승군돌격대 降魔軍이 있다. 이들은 성을 공격하거나, 평지에서 양국의 군대가 접전할 때 돌격대로 활약하였으며, 군대의 좌우익에 배치하여 싸움이 한창 치열할 때 적진에 투입하여 승부를 결정지었다.

척준경이 갑옷에 방패를 들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 추장 수명을 죽이자, 여진군 방어선에 틈이 생겼다. 이때 윤관의 직속부대가 좌군의 기병과 합세하여 결사의 각오로 싸워 여진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석성전투에서 패배한 여진군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패주하였다. 정벌군 사령관 윤관은 伊位洞²⁹에서 여진군과 대치하였다. 이위골짜기의 지형은 병목[瓶項]이었지만, 수륙으로 도로가 모두 통했다.³⁰ 여진군은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공격하였지만, 울창한 산림과 심한 경사 및 험준한 이곳의 지형은 주력군이 기병인 여진군에게 크게 불리하였다. 고려 돌격부대가 이곳에서 여진군 1천 200명을 살상하자, 여진군은 이위동 북쪽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윤관은 지금까지의 전과³¹에 따라 논상을 실시하고, 여러 장군을 나누어 보내어 동쪽, 서쪽, 북쪽의 경계를 확정하였으며, 영주, 응주, 복주, 길주를 개척하고 이곳에 성을 쌓았다.³² 그러나 여진군과 고려군은 예종 3년(1108) 1월 14일 가한촌 병목에서 전투를 벌였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 고려 기마전을 알 수가 있다.

윤관과 오연충이 정병 8천을 거느리고 가한촌 병목의 소로에 다다르니

29) 이위의 주변은 첩첩산중인데, 동해안에서 우뚝 솟아 고려 북쪽 변방까지 뻗었다. 지형이 험준하고 숲이 울창하여 사람과 말이 지날 수가 없다. 그 사이에 흔히 병목[瓶項]이라고 부르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곳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출입할 뿐이다. 만약 그 길을 막으면 여진의 길은 끊긴다고 한다(『고려사절요』 권7, 예종 2년 10월).

30)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5월.

31) 고려 정벌군의 전과는 총략 135개, 살상 3,740명, 포로 1,030명이다(『고려사』 권96, 열전, 제신 윤관).

32) 『고려사』 권96, 열전 윤관.

적이 군사를 소로부근 숲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윤관의 부대가 그곳에 당도할 무렵에 급히 돌격하였다. 윤관의 부대는 陣이 무너져 흩어지고 다만 10여 명만 남았다. 적이 윤관 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고, 오연충도 화살에 맞아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이때 척준경이 용사 10여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그의 아우 낭장 척준신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적진이 견고하여 좀처럼 돌파하지 못할 듯한데, 헛되게 죽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척준경이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 늙으신 아버지를 공양하라. 나는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의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 크게 호통을 치면서 돌진하여 10여 명을 쳐 죽였다. 최홍정과 이관진 등이 산골짜기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구원하였다. 적들이 포위를 풀고 도주하므로 추격하여 36명을 죽였다. 윤관 등은 해가 저물었으므로 영주성으로 되돌아 갔다.³³

위 사료는 윤관의 본대가 가한촌의 병목에서 갑자기 적의 공격을 받고 한때 위협한 고비를 맞았지만, 척준경과 최홍정·이관진 휘하부대의 지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이다. 가한촌의 병목 지역은 전술적 요충지로써 군대가 열을 지어 통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윤관은 휘하 병력 8천을 중군, 전군, 후군, 좌군, 우군 등 5개 부대로 나눈 다음, 윤관의 본대가 먼저 병목 입구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가한촌의 병목을 통과하려는 순간 병목 근처 숲속에 매복한 여진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여진 기병은 鳥雲陣³⁴으로 고려군을 포위하고 강한 활을 쏘았다. 고려군

33)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춘정월, “羅吳延寵 率精兵八千 出加漢村 瓶項小路 賊設伏叢薄間 候羅軍至 急擊之 軍卒皆潰 唯餘十餘人 賊圍羅等數重 延寵中流矢 勢甚危急 拓俊京 率勇士十餘人 將救之 弟郎將俊臣 止之曰 賊陣牢不可破 徒死無益 俊京曰 而可歸養老父 我以身許國 義不可止 乃大呼突陣 擊殺十餘人 崔弘正李冠珍等 自山谷引兵來救 賊乃解圍而走 追斬三十六級 羅等 以日晚 還入英州城”

34) 적과 대치하여 진을 칠 때는 반드시 衝陣으로 배치하고, 군사를 편리한 지형에 주둔시키며, 그런 다음에 기병을 나누어 조운진을 친다. 중국의 『六韜三略』에서는 조운진을 까마귀 오자를 사용해서 오운진이라고 하였다. 오운진의 특징은 까마귀가 불시에 흩어져 날아가는 것 같고, 구름이 뭉게 뭉게 한데 모이듯이 홀연히 흩어졌다 홀연히 모여드는 것처럼

은 협소한 지형에서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전투 대열이 급속히 무너졌다. 따라서 고려 기병은 개미처럼 한 곳으로 몽칠 수밖에 없었으며, 화살에 의한 피해가 더욱 컸다. 여진 기병은 순식간에 윤관과 오연충 등 10여 명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척준경은 윤관을 구출하기 위해 도끼부대 도탕군³⁵⁾을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여진군 10여 명을 죽였다. 그리고 좌군의 최홍정과 이관진 장군은 산골짜기에서 군대를 지휘하여 협공하였다. 활만으로 응전하던 여진군은 방패와 창검 및 화기로 무장한 고려군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때 고려 기병이 패주하는 여진군을 추격하여 36명을 죽였다.

병목 전투는 여진군이 지형의 이점을 용병에 활용해 요새지를 선점하였기 때문에 고려군이 절대 불리한 상태였다. 그러나 철기군과 창검으로 무장한 척준경의 용맹함과 별무반을 창설한 이후 향상된 고려 기병의 돌파력으로 인해 여진 기병을 제압할 수 있었다. 고려 기병은 병목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계속 북진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여진군이 북쪽으로 통하는 수륙의 주요 통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관의 본대는 일단 영주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가한촌 병목 전투에서 패배한 여진군은 예종 3년(1108) 1월 보기병 2만으로 영주성 남쪽에 진을 쳤다. 당시 영주성의 본대는 8천여 명이었다. 아군은

럼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조운진은 흠어지는 새와 모여드는 구름과 같은 모양으로 대오를 이루지 않고 접전하는 진법을 말한다. 산 위에서 전투를 할 때는 주로 조운진을 쳤다. 다시 말해서 한 두 곳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이들 한 두 곳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점에 예비대를 배치하면, 적이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도 예비대가 그 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다. 따라서 좌우측을 방어하면서 후위에서 이들 사이를 신속히 지원하는 병력 배치 개념이 오운진이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이것을 조운진이라고 지칭하였다. 특히 여진군은 적보다 군사가 많으면 포위에 힘쓰고, 적보다 숫자가 적으면 나무나 돌에 숨어서 강한 활을 쏘았는데, 산천이 험하고 좁아 열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여진군이 사용한 조운진은 일종의 게릴라 전법인 셈이다.

35) 도탕군의 돌격적 성격은 다음 논고를 참조할 것.
이흥두, 앞의 논문, 248쪽.

소수이고 적군은 다수였기 때문에 윤관은 성문을 닫고 방어하는 수성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척준경은 군량과 구원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성전술은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탕군과 경궁군 및 신기군으로 결사대를 조직한 다음, 성문을 열고 적진 깊숙이 돌격하여 19명을 죽이니 적이 패하여 북쪽으로 도주하였다.³⁶⁾ 2월에는 여진 주력군 수만명이 옹주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최홍정이 4대문을 열고 일시에 기병을 출격시켜 여진군 兵車 50여 량, 중차 200여 량, 말 40필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³⁷⁾

4. 동북 9성의 설치 이후 수성전과 기마전

고려 정벌군은 예종 2년(1107) 2월에 영주성, 옹주성, 복주성, 길주성을 쌓았다.³⁸⁾ 그리고 예종 3년(1108) 2월에는 함주와 공협진에 성을 쌓았으며,³⁹⁾ 3월에는 의주, 통태진, 평양진에 3개 성을 쌓아 동북 9성을 완성하고,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⁴⁰⁾ 윤관은 17만 군대 대부분을 9성에 남겨 그

36)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춘정월, “賊步騎二萬 來屯英州城南 大呼挑戰 璫與林彥曰 彼衆我寡 勢不可敵 但當固守而已 俊京曰 若不出戰 敵兵日增 城中糧盡 外援不至 將若之何 前日之捷 諸公不見 今日 亦出死力以戰 請諸公 登城觀之 乃率敢死士 出城與戰 斬十九級 賊敗衄 奔北”

37)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춘정월.

38) 윤관은 예종 2년에 여러 장군들을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쫓고, 군사를 나누어 땅을 차지하였다. 동으로는 화곶령에 이르고, 북으로는 궁한령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몽라골령에 이르렀다. 몽라골령 아래에 성곽 990간을 쌓아 이름을 영주라 하고, 화곶산 아래에 992간을 쌓아 이름을 옹주라 하고, 오림금촌에 774간을 쌓아 이름을 복주라 하였다. 궁한촌에는 670간을 쌓아 이름을 길주라 하였다(『고려사』 권96, 열전 윤관).

39) 함주는 별호를 함평이라 하였고, 오늘의 함흥인데, 수북한 동북부 지역에서 중요한 거점이었다. 남쪽 백성 1,948호를 이주시키고, 대도독부를 설치하였으며 진동군이라고 불렀다. 한편 공협진은 수북한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었으며, 오늘의 동녕현성으로 옛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다. 남쪽 백성 532호를 이주시키고 방어사를 두었다.

40)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3월.

곳을 방어하였지만, 함주에서 공험진까지는 지역이 너무 넓었다.

[표2] 동북 9성의 위치



※ 최초의 9성 중 의주, 통태진, 평양진은 위치미상임.

한편 영주성과 응주성에서 도주한 여진군은 군대를 10대로 편성하여 9성을 침공하였다.⁴¹⁾ 특히 적장 알새가 4월 8일 응주성 밖에 목책을 치고 성을 포위함으로써 고려 정벌군과의 전투는 피할 수가 없었다. 응주성 전투는 5월 4일까지 1개월간 전개되었는데, 다음의 사료가 당시 고려 기마전의 일면을 말하고 있다.

5월에 여진군이 응주성을 27일동안 공격하였다. 병마 영할 입언, 도순검사 최홍정 등이 장군들을 거느리고 부대를 나누어 굳게 지키며 오래도록 싸웠다. 그러나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하여 성이 위태롭게 되었다. 오연총이 문관, 김준, 왕자지 등에게 정병 1만을 거느리고 네 길로 나누어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였다. 오음지와 사오 두 고개 아래 도착하니, 여진군이 먼저 고개 입구를 점거하고 있었다. 아군이 앞을 다투어 돌격해서 적병 191명을 죽이니, 적들이

41) 『금사』 권65, 열전 알새.

도주하였다. 그런데 적들이 다시 평지에 진을 치고 반격을 시도하였다. 관군이 이긴 기세를 타고 힘껏 싸워 크게 격파하여 적병 291명을 죽였다. 여진군은 할 수없이 목책을 불사르고 도망하였다.⁴²⁾

위 사료에서 고려군과 여진군의 기병전술을 잘 엿볼 수가 있다. 당시 여진군은 응주성을 탈취하기 위해 성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한 반면, 고려군은 성문을 닫고 끝까지 수성전으로 성을 지켰다.

고려군은 성 둘레에 해자를 깊이 파고 성 위에는 화포, 궁시, 뇌석을 많이 배치하여 여진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⁴³⁾ 27일간 계속된 여진군의 공격으로 인해 응주성은 함락될 위기에 몰렸지만, 고려군은 오직 방어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 적의 형세가 고단할 때는 성문을 열고 나가 기병이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성밖에 복병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없었다.

응주성의 군대는 처음부터 숫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오연총⁴⁴⁾이 1만의 구원군을 이끌고 응주성에 이르렀다. 오연총은 여진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눈 다음, 육로와 수로로 각각 진격하였다. 구원군은 오음지와 사오고개에서 최초로 여진 선봉대와 접전하였다.

초기전투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여진 선봉군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고려 구원군은 험한 지형의 전투에 익숙한 별무반 소속의 특수군을 배치함으로써 여진군 191명을 사살하였다. 그런데 당시 여진군의 패배는 고려군의

42)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5월, “五月 女眞攻雄州城 凡二十七日 兵馬鈴轄林彥 都巡檢使崔弘正等 率諸將 分兵固守 與戰日久 人馬困乏 將潰 吳延寵 使文冠金峻王字之等 領精銳一萬 分爲四道 水陸俱進 至烏音志 沙烏 二嶺下 女眞先陣嶺頭 我兵爭登 急擊斬一百九十一級 賊奔北 復欲結陣於平壤 官軍乘勝力戰 賊大敗 遂燒柵而去 斬二百九十一級”

43)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1월 1일(임진)

44) 윤관과 오연총이 응주성을 떠난 것은 여진군이 응주성을 포위하기 6일전인 1108년 4월 2일이고, 그들이 개경에 돌아온 것은 4월 9일이다. 한편 고려 정부가 병마부원수 오연총을 응주성 구원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4월 23일이고, 그가 구원군을 이끌고 응주성에서 적을 격파한 것은 5월 4일이다.

화기와 별무반 소속의 돌격대 역할이 매우 컸다.⁴⁵⁾

한편 도주하던 여진군은 평지에서 전투대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시도하였다. 대열의 전면에는 兵車와 中車⁴⁶⁾ 및 기병 50기를 1대로 하는 기병대⁴⁷⁾를 배치하였다. 승세를 타고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고려 구원군은 신속하게 방진을 치고 여진군의 반격을 물리쳤다. 이때 구원군은 화기와 돌격대의 기동력으로 여진군의 車騎와 기병대를 격파하고 291명을 사살하였다.

산악지형에서의 전투는 중기병과 경기병의 혼합체로 구성된 여진군보다는 돌격대와 협동작전을 구사한 고려군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여진 기병에 대응하여 별무반을 창설한 이후의 현상이다. 따라서 옹주성의 군대와 증원군에게 포위된 여진군은 목책을 태우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예종 3년 7월 이후 고려군은 수성전술 대신 성 밖에서 부대단위로 적에 대응하는 공격전술로 전환하였다. 7월 25일 고려 수군 행영병마 판관어사 신현이 적의 선박을 쳐서 20급을 베고,⁴⁸⁾ 행영병마 판관 왕자지와 척준경이 함주, 영주에서 적 33급을 베었던 사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⁴⁹⁾

예종 3년 8월 중순 윤관은 길주성에서 여진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성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도처에서 감행된 여진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다수의 방어군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는 8월에 점군사를 9도에 파견하여 군사를 징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1109년 1월에 훈련을 마치고 9

45) 고려는 보병이고 여진은 주력군이 기병이다. 따라서 고려는 여진 기병을 막기 위해 拒馬楯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러한 규례를 모방하여 조선초기에 방패군을 설치하였다. 방패군은 돌격부대의 일종으로 적의 선봉을 꺾고 적을 격파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조선왕조실록』 권88, 세종 22년 3월 1일).

46)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2월.

47) 여진의 기병대 50기 가운데 앞의 20기는 돌파용 타격무기를 장착한 중장기병이고, 뒤의 30기는 활로 무장한 경기병이다. 중기병은 적의 약점을 찾아서 돌진하고, 경기병은 후방에서 활을 쏘아 돌격대를 엄호하였다. 만약 적진이 파괴되면 전군이 모두 출격하였다(임용한, 『전쟁과 역사 2』, 해안, 2004, 263쪽).

48)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7월.

49) 『고려사절요』 권7, 예종 3년 8월.

성에 파견하였다.

여진군의 침공은 3월부터 크게 증가하였지만, 고려 행영병마녹사 장문위는 송녕진에서 싸워 38급을 베었고, 행영병마 판관 허재는 길주관 밖에서 30급을 베고 갑옷과 우마를 노획하였다.⁵⁰⁾ 그러나 알새가 지휘하는 여진군이 길주성을 포위함으로써 몇 달간 지속된 길주성 전투가 시작되었다. 다음의 길주성 전투가 고려 기마전을 설명하고 있다.

여진이 길주성을 포위하였다. 성에서 10리가 되는 곳에 작은 성을 쌓고 목책 6개를 세워 수 개월 동안 매우 급하게 성을 공격하여 성이 거의 함락될 뻔하였다. 병마부사 이관진 등이 군졸을 독려하여 하루밤에 다시 증성을 쌓고 적을 막았으며, 또 공격하였다. 군대의 피로가 극도에 이르러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오연총이 인솔하는 증원군이 길주성을 구원하려 하였지만, 여진이 길을 막고 요격하므로 우리 군사가 크게 패배하였다. 죽고 포로로 잡힌 것은 모두 셀 수가 없었다. 오연총은 장계를 올려 죄 받기를 청하였다.⁵¹⁾

위 사료는 길주성을 포위한 여진군이 10리 후방에 진지를 구축하고 수 개월을 공격함으로써 아군의 사상자가 많았으며, 한편 오연총의 구원군도 여진의 매복군에게 습격을 받아 패배했다는 내용이다. 여진의 적장 알새는 길주성을 탈취하기 위해 모든 부족을 동원하여 길주성 10리밖에 장성을 쌓고 6개의 목책을 세워 성을 포위하였다. 여진군은 성을 공격하면서도 10리 밖 후방에 목책을 세우고 장성을 쌓아 진지를 구축한 것은 고려 기병이 성문을 나와 기습하는 것을 막고, 장기전에 대비한 조치였다.

여진군은 군대의 간격을 적당히 벌려 고려군이 성 위에 서지 못하게 하면서 공격하기 쉬운 곳에 화살을 집중하였다. 한편으로 포대를 가지고 흙을 담아서 성밖 한쪽을 쌓아 올린 다음, 성을 공격하였다. 고려군은 성 위에서

50) 『고려사절요』 권7, 예종 4년 3월

51) 『고려사절요』 권7, 예종 4년 5월, “女眞圍吉州城 去城十里 築小城 立六柵 累月攻城甚急 城幾陷 兵馬副使李冠珍等 訓練軍卒 一夜更築重城 且守且戰 然役久勢窮 死傷甚衆 吳延寵引兵將救之 女眞遮路掩擊 我師大敗 殺獲不可勝數 延寵具狀乞罪”

劍車, 石砲, 弩를 발사하여 여진군을 명중시키고, 성을 두 겹으로 쌓으면서 길주성을 고수하였다.⁵²⁾ 여진군이 포위를 풀고 후퇴하자, 고려 기병은 즉시 성문을 열고 추격하였다. 그러나 기병과 함께 측면에서 협공할 보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책 등 장애물이 고려 기병의 기동력과 파괴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고려 정부는 길주성이 고립되자, 1109년 5월 16일, 병마부원수 오연총이 이끄는 증원군을 길주성에 파견하였다. 여진 기병은 증원군이 길주성과 연락하여 여진군을 협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퇴로를 선점하기 위해 성 주변의 도로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오연총의 증원군을 요격하여 크게 패배시켰다.⁵³⁾ 고려 정부는 길주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연총을 또다시 파견하였다. 그러나 6월 12일 구원군이 정주를 출발하여 나복기촌에 이르렀을 때 완안부 추장 우야소가 화의를 청함으로써 정주에 주둔하게 되었다.⁵⁴⁾

고려정부에서는 재상들과 대간, 6부의 관원이 모여 9성을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였다.⁵⁵⁾ 당시 9성의 반환 문제를 놓고 관료들이 상호 대립한 것은 병목(瓶項)에 대한 전술적 차이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9성 반환에 찬성하는 자들은 병목만 점령하면 소수의 보병만으로도 여진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요해처의 수륙교통이 사방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한⁵⁶⁾ 이상 군사적 비용이 많다는 것이고, 반환에 반대한 자들은 이미 고려 기병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9성 방어를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 정부가 1109년 7월 9성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자, 5일만에 신속히 정벌군을 철수하였다.⁵⁷⁾

52)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1월 1일(임진).

53) 『고려사』 권96, 열전 오연총

54) 김재홍, 앞의 책, 170~171쪽.

55) 『고려사절요』 권7, 예종 4년 2월.

56) 『고려사절요』 권7, 예종 2년 10월

57) 유재성, 앞의 책, 188쪽.

5.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고려의 여진정벌과 기마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한 결과 윤관이 동북 9성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공격적인 속전속결의 기마전을 사용하였지만, 동북 9성을 설치한 이후에는 방어적인 수성전술로 전환함으로써 기마전을 적게 하였음을 알았다. 또한 공격적인 시기도 속종대는 보병이 주력군이었으므로 패배하였지만, 예종대는 처음 창설한 별무반 소속의 돌격대와 신기군이 공격을 주도함으로써 고려 정벌군이 여진 기병을 제압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주성 전투에서 여진군에게 패배한 사실과 신기군의 창설에 대해 고찰하였다. 속종대 여진정벌은 1104년(숙종 9) 2월에 판동북면행영병마사 임간이 첫 번째로 단행하였고, 3월에는 동북면행영병마도통 윤관이 두 번째 단행하였지만, 모두 패배하였다. 당시 임간은 정주성 앞에 진을 친 여진군을 정면에서 공격하였다. 여진군은 고려군이 끝까지 추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요해처에 기병을 잠복시킨 다음 후퇴했는데, 임간은 여진군이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병으로 추격하였다. 그러나 여진의 주력군이 고려군의 후미를 끊고 공격함으로써 고려군은 정주성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증추원 별가 척준경이 갑옷을 입힌 介馬를 타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여진 기병의 추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진 기병은 정주성 선덕관을 점령하고 고려군을 수없이 죽이고 노략질하였다.

고려 정부는 임간을 윤관으로 교체하여 여진정벌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겨우 30여 급의 여진병사를 베었을 뿐 고려군도 부상자가 절반을 넘었다. 윤관은 여진정벌의 실패 원인을 적은 기병이고 아군은 보병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別武班을 세우도록 건의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에 따라 숙종 9년(1104) 12월에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별무반은 문무 산관과 吏胥에서 商賈·노비, 주·부·군·현까지 말이 있으면 신기군, 말이 없으면 보병

에 편제하였다. 특히 보병인 신보군·跳濫軍·梗弓軍·精弩軍·發火軍·降魔軍은 기병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여진 정벌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2장에서는 윤관의 9성 설치와 공격적인 기마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예종대 여진정벌은 예종 2년(1107) 10월 윤관을 정벌군의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에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윤관은 17만 군대를 중군·좌군·우군으로 편제하여 12월 정주성 이북으로 진격하였다. 윤관의 본대가 동음성을 포위하자, 여진군은 성 위에서 활을 쏘며 저항하였다. 정벌군은 보병과 기병을 벌려서 세우고 火箭을 계속 쏘아 여진군이 성위에 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 사이에 돌격대와 기병이 급히 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한편 좌군은 석성(북청군)에서 여진의 주력군과 격전을 벌였다. 석성은 매우 높고 가파른 성이었다. 여진군은 화살을 빗발처럼 쏘고 돌을 굴러 방어하였다. 이때 척준경이 철기군을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대열을 무너뜨린 다음, 윤관의 본대와 합세하여 성을 함락시켰다. 척준경의 철기군은 별무반의 소속의 특수부대였다. 윤관은 1108년(예종 3) 1월 가한촌 병목에서 전투를 벌였다. 당시 여진군은 병목에서 烏雲陣으로 윤관 등을 순식간에 포위하였다. 척준경이 돌격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여진군 10여 명을 죽였다. 이때 산골짜기에 진을 쳤던 좌군의 최홍정과 이관진 장군이 방패와 창검, 화기로 무장하고 여진군을 격파함으로써 윤관을 구출할 수 있었다.

병목전투에서 고려 정벌군이 승리한 것은 별무반 소속 특수군의 역할이 매우 컸다. 병목전투에서 패배한 여진군은 기병 2만으로 영주성 남쪽에 진을 쳤다. 당시 윤관은 고려 본군이 8천명에 불과했으므로 수성전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척준경은 군량과 구원군이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수성전을 전개하면 위험이 크다고 하면서 성문을 열고 기병을 출격시켰다. 이때 여진군은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북 9성의 설치 이후 수성전과 기마전에 대해 고찰하였다. 여기서서는 고려 기병전술을 예종 3년(1108) 5월 응주성전투, 예종 4년(1109) 길주성전투와 관련하여 다루었다. 여진군은 응주성을 탈취하기 위해 성을

포위하고 27일간 공격하였다. 이에 고려군은 성 둘레에 해자를 파고 성 위에 화전·공시·뇌석을 배치하여 성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27일간 계속된 여진군의 공격으로 성은 함락 위기에 몰렸다. 이때 오연총이 1만 구원군을 이끌고 오음지와 사오고개에서 여진군을 격파하였다. 당시 고려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험한 지형에서 여진기병을 격파하도록 훈련된 별무반 소속의 특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길주성전투는 3월에서 6월까지 전개되었다. 여진군은 길주성을 탈취하기 위해 길주성 10리밖에 장성을 쌓고 6개의 목책을 세운 다음, 성을 포위하였다. 여진군이 후방에 진지를 구축한 것은 길주성의 기병이 성문을 나와 공격하는 것을 막고 장기전에 대비한 조치였다. 여진군은 고려군이 성위에 포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취약한 지점에 화살을 집중하여 쏘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포대에 흙을 담아 성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 길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은 성루에서 劔車, 石砲, 弩를 발사하고 화살을 쏘아 여진군을 물리쳤다.

(원고투고일 : 2007. 5. 14, 심사완료일 : 2007. 8. 10)

주제어: 별무반, 척준경의 철기대, 가한촌의 병목전투, 조운진, 9성의 방어

<ABSTRACT>

Goryeo's Conquest of Jurchin and Its Cavalry Battle

Yi, Hong-du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In Chapter I, it was examined the conquest of Jurchin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in the *Goryeo* Dynasty and cavalry tactics in the fight. *Jurchin* in *Wanan-bu*, which had annexed surrounding tribes under its rule, deployed its army in front of the *Jeongju* Castle in January 1104 and threatened the border with *Goryeo*. In February, *Lim Gan*, the Commander of the *Goryeo* Conquest Forces composed of 30,000 infantry soldiers and cavalry soldiers attacked the *Jurchin* Forces to its front. Assuming that the *Goryeo* Forces would pursue to the end, the *Jurchin* retreated, leaving its cavalry ambushed at strategic points. Believing that the *Jurchin* Forces had run away, *Lim Gan* pursued it with the cavalry but the *Jurchin* Forces cut the tail of the *Goryeo* Forces and attacked it from the sides. As a result, the Forces Forces was defeated. In December, *Yun Gwan*, the Commander of the Northeastern Army, organized *Byeolmuban*(別武班) composed mainly of storming parties and cavalry as a preparation for the conquest of *Jurchin*.

In Chapter II, it examined the conquest of *Jurchin* during the reign of King *Yejong* and cavalry tactics in the fight. In October 1107, *Goryeo* appointed *Yun Gwan* as the Commander of the Conquest Forces. *Yun Gwan* divided the force of 170,000 into the Middle Force, the Left Force and the Right Force, and advanced to the north of the *Jeongju* Castle in December. *Yun Gwan's* main attack forces surrounded the *Donggeum* Castle, and while fanning out the

infantry and the chivalry and preventing the *Jurchin* Forces from standing on the top of the castle wall by firing artilleries, the storming parties raided upon the castle and took it. The Left Force confronted the main force of *Jurchin* in the *Seok* Castle. The wall was very high and steep, and the *Jurchin* Forces resisted desperately, raining down arrows and rolling down rocks. At that moment, *Cheok Jun-gyeong* led an Iron-armed Cavalry Unit(拓俊京 鐵騎隊), rushed into the enemy's camp and disrupted the line, and then joining *Yun Gwan's* main attack forces, captured the castle. At a Bottleneck Battle(瓶項戰鬪) in 1108, the *Jurchin* army surrounded the *Goryeo* Forces including *Yun Gwan* in a Flash through Dark-cloud Formation(烏雲陣). Leading a storming party, *Cheok Jun-gyeong* rushed into the enemy's camp and killed some 10 *Jurchin* soldiers. At the same time, the Left Force attacked from the valley and defeated the *Jurchin* forces.

In Chapter III, it was examined *Yun Gwan's* fortification of nine castles(九城防禦) and his cavalry tactics. This chapter discussed the *Goryeo* Forces' Cavalry Tactics in relation to the *Ungju* Castle battle in May 1108 and the *Gilju* Castle battle in 1109. The *Goryeo* Forces defended the *Ungju* Castle by digging a moat around the castle and deploying artilleries, archers and catapults on the top of the wall. After the *Jurchin* Forces' unceasing attacks for 27 days, however, the castle was on the verge of fall. The defending force concentrated on defending the castle(守城戰) and, as opportunity permitted, the cavalry confronted the enemy outside the castle. At that time, *Oh Yeon-chong's* relief force of 10,000 destroyed the *Jurchin* Forces at *Oeumji* and *Saogogae*, and the main contributors to the victory were storming parties belonging to *Byeolmuban*, which had been trained targeting *Jurchin's* Cavalry in rugged mountain ranges. The *Gilju* Castle battle was continued from March to June. In order to capture the *Gilju* Castle, the *Jurchin* Forces built a long wall and six wooden fences four kilometers away from the *Gilju* Castle, and surrounded the castle. The construction of the stronghold in the rear was to prevent the cavalry in the *Gilju* Castle from coming out of the castle and attacking the *Jurchin* Forces.

The *Jurchin* Forces mounded bags filled with earth on a side outside the wall and attacked the castle but the *Goryeo* Forces defeated the *Jurchin* Forces by throwing swords, rocks and shafts and shot arrows from the top of the wall.

Key Words : *Byeolmuban*, *Cheok Jun-gyeong* led An Iron-armed Cavalry Unit, Bottleneck Battle, *Yun Gwan*'s Fortification of Nine Castles, Defending the Castle